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언론보도 내용, 부산체육 특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생활
5% 할인

간편결제/CU/GS25/스타벅스

학원
5% 할인

학원 입장

의료
10% 할인

병원/약국/입증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 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
(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카드 자체회보기

부산광역시체육회 × BSNK 부산은행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SNK 부산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1868 (심의일자 2024.10.17) 유효기간: 2024.10.25 ~ 2025.10.24
연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d-13136호(2024.10.25 ~ 2025.10.24)

부산체육
2025. 01 Vol. 74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74
2025. 01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부인기억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5. 01 Vol. 74



발행일 2025년 1월 15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74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정종욱, 문찬식, 김성무,
김도희,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 051-500-7900)
기획·제작 효민디앤피



※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NTENTS

B BUSAN HEROES

- 04 신년사
 -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
 -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
 - 부산광역시교육청 최윤홍 교육감 권한대행

- 16 2025년 힘찬 포부
 - 초등부 반여초등학교 태권도부
 - 중등부 낙동중학교 축구부
 - 고등부 부산체육고등학교 세팍타크로부
 - 대학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야구부
 - 일반부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S SPORTS SERVICE

- 22 부산광역시체육회 2025 비전과 목표
- 28 스포츠 파노라마
지구온난화와 동계스포츠
- 32 공공스포츠클럽 소개
부경스포츠클럽

G GOOD LIFE

- 34 스포츠 라이프
부산 스키사랑
- 38 스포츠 기고·부산스포츠 기자단
 - 2024 부산 체육 진흥 세미나
 - 제13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생활체조 & 댄스페스티벌 경연대회
- 42 라이프 업그레이드 [삶]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미리보기
- 44 라이프 업그레이드 [읽]
트렌드 코리아 2025
-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권정윤, 한다혜 외 5명

S FOR SPORTS CITY

- 46 BSC 뉴스
- 50 회원단체 소식
- 54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부산실내빙상장
 -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 신평장림체육관
- 56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해가 되길

『부산체육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푸른 뱀처럼 지혜롭고 유연하게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더 높은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부산체육은 또 다른 성취와 자긍심을 안겨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을 비롯한 각종 대회 개최와 다양한 세대와 연령을 위한 유아체육활동,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여성체육대회, 어르신 체육활동 등 일생형 체육활동 지원과 신규로 개관한 신평·장림체육관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활기찬 운동 문화 조성으로 생활체육천국도시 부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김해에서 개최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8년 만에 종합 6위, 2년 연속 광역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23년 만에 최다 메달 획득,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17년 연속 종합 5위 달성 등 부산체육의 미래와 인재육성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에서 학교체육 그리고 전문체육 발전의 괄목할 만한 성과로 대한체육회가 실시한 전국 시·군·구체육회 성과평가에서도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2025년은 부산체육이 Re Start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전은 체육인과 시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화합과 감동의 국민 스포츠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2025 WADA 총회 역시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총회 개최로 부산이 국제적인 클린 스포츠 도시 이미지 제고와 스포츠 가치 확산을 통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고의 역량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산체육의 새로운 희망과 도전에 부산 시민 여러분과 부산체육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존경하는 부산 체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을사년은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이루기에 더없이 좋은 해입니다.
부산 체육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풍요,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부산 체육은 많은 성과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8년 만에 종합 6위 달성과 함께 6대 광역시 중 2년 연속 1위라는 쾌거를 이루며 부산 체육의 저력을 전국에 다시 한번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을 통해 시민과 동호인이 화합하고 즐기는 부산대표 체육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부산시 생활체육포털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체육시설 정보를 접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부산 체육인과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25년은 부산 체육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25년 만에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체육인과 시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를 비롯한 국제스포츠 행사를 적극 유치·개최하여 부산을 글로벌 스포츠 허브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시민행복 부산회의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2026년까지 파크골프장 306홀과 테니스장 112면을 조성하고, 국민체육센터 등 종합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 인기종목 인기 전국 생활스포츠대회와 부산특화 스포츠대회인 시민참여 체육행사를 확대 개최하고 시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부산을 생활체육 1등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체육은 건강한 삶을 만들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가장 훌륭한 매개체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시민 모두가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천국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부산 체육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성민

부산 체육인 열정, 시민화합·부산 대도약 이끌 희망 에너지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체육가족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스포츠는 지난 2024년 한해도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해주었습니다. 2월 부산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7월과 8월 전 국민을 감격하게 했던 파리 올림픽, 부산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제105회 전국체전까지 일 년 내내 참 뜨거웠습니다.

또한 부산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전국 체육회 성과평가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경기력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물했으며 전국 최고라는 큰 성취로 부산시민의 자부심을 드높인 체육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새해가 되면 새 출발을 굳게 다짐하지만 올해 2025년을 맞는 각오는 더욱 특별합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며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선사해 왔습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역시 전대미문의 스포츠 축제로 기록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스포츠 천국 부산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격변의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국제정세는 요동치고 있고 그 여파로 민생의 고단함이 그 어느 때보다 큼니다. 대망의 2025년에도 언제나처럼 체육인 여러분의 열정이 시민화합과 부산 대도약을 이끌 희망의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체육인 여러분의 열정을 뒷받침하고 스포츠 천국 부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최윤홍

지혜와 변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길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승리의 기쁨과 환희로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부산체육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을사년은 지혜를 가진 푸른 뱀의 해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이루어가시길 기원합니다.

부산체육계의 발전과 화합에 공헌하시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 체육회 회장님과 체육 지도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 영광의 역사와 함께하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인들의 권익 보호, 우수한 선수 양성에도 앞장서며 모두를 위한 스포츠 복지로 체육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부산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체육 활동을 통해 부산의 발전과 화합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체육계의 역량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부산시체육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모두가 함께하는 아침체육활동인 '아침체인지'를 통해 학생들의 체력과 인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체력 증진, 바른 인성 함양, 학습 의욕 증진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은 아침체인지는 전국적 돌풍을 일으키며, 교육부와 타 시도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교육 변화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학교체육활동을 활성화하며,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부산체육계가 소통·화합하여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무한한 발전과 부산의 체육인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회원구·군체육회장 신년사



중구체육회
회장 심재철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중구체육회장 심재철입니다.

먼저 2024년 한 해동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체육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체육회에서는 중구민의 건강증진과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체육대회 및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체육 현장에서 느껴지는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하나 되는 분위기에 다시 한번 체육 발전의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심 속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 실현되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입니다.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체육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이르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체육회
회장 황현선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해 보다도 무척 덥고 길고 긴 여름이었습니다.

모두들 참고 견디며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구체육동호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동구는 구민운동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민대축전 및 동구청장배체육대회 등 큰 행사를 체육회 임·직원들과 각 종목협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덕분에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동구체육회는 "하버시티 동구"의 미래 비전과 발맞추어 체육으로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와 더불어 구민과 더욱 소통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우리 체육인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체육회
회장 김용구

안녕하세요. 딱! 살기좋은 서구!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장 김용구입니다. 2025년 푸른뱀의 해 을사년(乙巳年)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순간, 모두의 삶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체육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부산광역시 체육회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16개 구·군체육회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현재 서구에서는 생활체육 동호인의 활성화를 위해 총 21개 회원종목단체가 가입되어 활동 중입니다. 이종격투기, 보디빌딩, 킥복싱, 체조, 궁도, 씨름이 새롭게 인정단체로 가입하면서 서구의 생활 체육 기반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구 주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건강증진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추가됨으로써 연령, 관심사, 체력 수준에 맞는 맞춤형 체육활동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서구체육회는 올 한 해도 체육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다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체육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서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체육을 통한 소통과 화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풍성한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함께 하는 체육을 통해 우리 서구가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체육인들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도구체육회
회장 한영익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장 한영익입니다.

2025년 을사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체육인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영도구체육회를 아끼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체육회는 여러대회와 프로그램을 통해 영도구 주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며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체육인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 덕분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띠의 해입니다.

뱀이 지닌 지혜와 유연함처럼 우리 체육회도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체육은 단순히 운동을 넘어 지역사회의 화합과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올해도 동호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더욱 풍성한 체육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진구체육회
회장 김석조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부산체육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장 김석조입니다. 어느덧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甲辰年)이 지나고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해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지난 한 해 일상 속 생활체육 정착과 선진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부산의 모든 체육인 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는 부산시민체육대축전 및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백양산 숲길 걷기대회, 골드윙동경연대회 등 다양한 대회 및 행사를 통해 36만 부산진구민들의 삶의 활력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결과는 오직 체육인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해에는 체육인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활발한 체육활동이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푸른 뱀은 지혜와 기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2025년에는 새로운 도전과 성취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남구체육회
회장 정춘식

사랑하는 부산 체육인 및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의 푸른색은 꿈, 희망, 성장, 생명력을, 뱀은 지혜와 변화, 재생을 상징합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통해 부산 체육의 변화와 내적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새해의 시작을 맞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체육회는 지역 체육 발전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각종 대회와 행사에서 보여주신 선수들의 열정,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헌신,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덕분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부산 체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은 부산 체육이 한층 더 도약하고, 부산 체육인들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래구체육회
회장 정길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래구 체육 동호인 여러분! 동래구체육회장 정길호입니다.

을사년(乙巳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생활체육 가족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도 스포츠가 구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 믿으며 이에 동래구체육회도 생활체육 활동 지원과 구민 참여 체육행사를 통해 화합을 도모하여 활기 넘치는 동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동래구 체육가족 여러분! 건강한 100세 시대는 스포츠 복지정책으로 시작됩니다. 구민들은 보는 스포츠에 머물지 않고 함께 어울려 땀 흘리면서 스스로 스포츠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과 기쁨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이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손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래구는 부산 체육의 중심이며, 역사와 전통문화, 예술 그리고 체육까지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회원종목단체, 266개 클럽, 13,000여 명이 넘는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으며, 동래구국민체육센터 수탁 운영으로 3,800여 명의 회원들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여 동래구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힘쓰며 스포츠로 구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며, 구민들이 건강한 삶, 더욱 발전된 동래구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인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구체육회
회장 김성호

북구체육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장 김성호입니다.

지나간 해의 아쉬움은 뒤로한 채 어느덧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체육회는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생활 스포츠 현장은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 찼고, 소중했던 순간들을 함께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을사년은 유연함과 성장을 상징하는 을목과 지혜와 신중함을 상징하는 뱀의 특성을 함께 지닌다고 합니다. 2025년은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 발전을 위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소통해 나가며, 도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로 가득 찬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운대구체육회
회장 박영곤

사랑하는 체육인 및 가족 여러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장 박영곤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부산광역시체육회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님을 비롯한 체육회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해운대구체육회는 구
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참여도 향상이라는 과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초가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참여 자체가 즐거운 생활형 스포츠를 지향하고, 체육인 여러분과 지속적인 소통과 화
합이 하나 되는 건강한 체육회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는 또 다른 도전과 기회
를 맞이하게 됩니다. 해운대구체육회는 올해도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을 핵심 목표로 삼고, 지
역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구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육을 통해 지역 사회가 더욱 끈끈하게 결속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
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금정구체육회
회장 최규원

존경하고 친애하는 금정체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체육회장 최규원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변화, 신비를 상징하는 뱀의 해를 맞아, 올해에는 모든 어려움이 뱀
의 허물처럼 벗겨지고 기쁨과 사랑,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금정구체육회는 '운동으로 건강하GO, 금정구민 행복하GO'를 슬로건으로 삼아 지역
주민들의 행복과 체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더욱 도전
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체육인들이 불편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증설 및 보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스포츠가 생활화되어 행복한 금정
도시가 되는 날까지, 그 여정의 소중한 발자취를 함께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
여와 관심이 우리 금정구체육회의 미래, 나아가 지역 체육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기회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하구체육회
회장 이영수

존경하는 체육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체육회 이영수회장입니다.
2024년 해가 저물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사하구체육회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올
한 해도 우리의 체육활동이 더욱 많은 분들에게 기쁨과 활력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
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하구체육회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그 성과 뒤에는 항상 여러분의 응원
과 노력,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깊은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를 다짐합니다. 2025
년,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스포츠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새로운 체
육시설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누구나 쉽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겠습니다. 새
해에도 변함없이 체육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
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5년, 모두가 더 건강하
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서구체육회
회장 김재업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장 김재업입니다.
2024년 갑진년이 지나고 희망찬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는 부산시민과 체육인 가족 여러분께 푸른 뱀의 용기와 지혜로움으로 새로운 것에 도
전하여 "소원성취" 뜻하고 원하는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서체육인, 구민 여
러분! 새해, 초심으로 돌아가 강서체육의 현안을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에 고민하고 노력하여 오
늘보다 더 발전하는 체육인으로 봉사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가 신
뢰와 화합, 단합과 존중으로 스포츠메카도시 강서구의 선도에 함께하는 강서체육인의 리더로서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함께 강서구민들에게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고 체육활동 및 다
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하는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에 강서구체육회
임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에 개최하는 제106회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참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구의 체육인이 주최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더 많
은 지원과 참여로 체육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강서구체육회가 더욱더 신
뢰받고 발전하여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와 함께하는 체육회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과 강서체육인 여러분!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
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제구체육회
회장 김진근

안녕하십니까?

연제구체육회장 김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체육인 여러분!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민선 1기를 마치고 민선 2기의 첫해를 맞이하며 우리 연제구체육회는 많은 도전과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모두 연제 체육 동호인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 체육회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최고의 복지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운동이 주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한층 더 높이 도약하며, 성장과 발전을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의 연제구체육회가 되도록 다짐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상구체육회
회장 강진태

존경하는 체육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체육인 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체육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체육회는 한층 더 성장하며 지역 사회에 소중한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체육회장협의회 회장 및 사상구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진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협력하며 함께 이루어낸 성과들은 제게 큰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은 푸른 뱀띠해로, 지혜와 끈기를 상징하는 해입니다. 이러한 의미처럼, 우리 체육회도 지혜롭고 끈기 있게 도전하며 더 큰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체육의 역할은 단순히 신체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를 하나로 묶고 화합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올해도 이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지역 체육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체육인 가족 모두들 2025 을사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고대하며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영구체육회
회장 황대성

존경하는 수영구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2025년 희망찬 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호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를 목표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희망의 2025년 새해에도 민선체육회 출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수영구 체육의 현안을 잘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며 배려를 통한 갈등 해소로 나누어진 체육인의 마음을 한곳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내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전문성 극대화는 물론 임원 및 직원 상호 간 소통의 시간을 대폭적으로 할애하겠습니다. 체육 동호인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도모하는 이사님과 대의원님이 함께하는 워크숍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협회장배, 구청장배는 물론 시민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를 통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체육을 즐기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안정적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체육인 여러분! 건강한 사회를 건인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노인, 여성, 유아 등 연령 및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스포츠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가 지닌 숭고한 가치, 공정한 경쟁 그리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부산 최고의 체육회로 거듭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수영구 체육의 힘찬 도약을 위해 체육인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면 행복한 수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그 믿음으로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 웃음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장군 체육회
회장 최상철

체육가족 여러분 희망찬 을사년(乙巳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이 멀어지면 여명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임무를 묵묵히, 충실하게 수행하고 애써주신 식구분들이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체육인들이 한층 성숙한 마음 자세로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하고 유소년인재 육성 및 발굴이라는 새로운 체육 문화를 만들어 나가 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체육인 여러분의 협조를 구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회는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 되고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체육가족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모든일들 크게 성취하시고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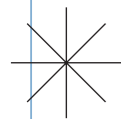


2025년 임찬 포부

★ 부산체고 세력타크로부

★ 반여초등학교 태권도부

★ 낙동중학교 축구부



2025
임찬 포부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야구부

★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반여초등학교 태권도부

질문

- Q1 나에게 태권도는 OO이다.
- Q2 2024년, 기억에 남는 순간은?
- Q3 2024년, 난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는지? 그 성장의 원동력은?
- Q4 2025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 Q5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승민



전여리

- ① 나에게 태권도는 보물이다.
- ② 소년체전 8강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 소년체전 메달을 따서 2024년도 통틀어 가장 좋았던 순간입니다.
- ③ 전지훈련 때 나이 많은 형들과 겨루기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④ 시합 때 지지 않도록 체력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게 자신감을 키우고 싶습니다.
- 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코치님, 감사합니다. 멋진 선수가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절 응원 해주는 가족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 ① 나에게 태권도는 꿈의 다리이다.
- ② 동유럽 사라예보 보스니아에서 뛰었던 시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 ③ 전국소년체전 앞두고 5학년에게 지는 바람에 충격을 받았지만 잘 극복해서 소년체전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 ④ 2025년에도 훈련 게을리 하지 않고 소년체전 메달을 다시 한번 따고 싶습니다.
- ⑤ 소년체전 1등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황선정 코치님, 제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낙동중학교 축구부

질문

- Q1 나에게 축구는 OO이다.
- Q2 2024년, 기억에 남는 순간은?
- Q3 2024년, 난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는지? 그 성장의 원동력은?
- Q4 2025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 Q5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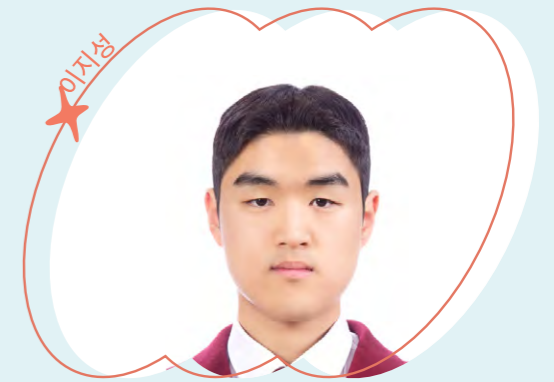


- ① 나에게 축구는 전부다.
- ② 전국 소년체전 중등부 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③ 경기가 뜻대로 안 풀릴 때 마음 추스르기가 힘들었는데 감독님과 코치님, 부모님, 친구들이 많이 격려해준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④ 2025년에는 연령별 국가대표에 선발되고 싶습니다. 올해 한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긴장을 많이 한 탓에 기량을 제대로 선보이지 못해 탈락해서 아쉽습니다. 소속팀 훈련 열심히 해서 다음엔 꼭 국가대표로 선발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⑤ 부족한 부분 잘 가르쳐주시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감독님, 코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해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열심히 훈련한 저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부상으로 힘든 시기 겪었는데, 그래도 잘 극복해내서 다행이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2025년에는 다치지 말고 잘해보자. 파이팅!”

부산체고 세팍타크로부

질문

- Q1 나에게 세팍타크로는 OO이다.
- Q2 2024년, 기억에 남는 순간은?
- Q3 2024년, 난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는지? 그 성장의 원동력은?
- Q4 2025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 Q5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① 나에게 세팍타크로는 스승이다.
- ② 청소년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뛰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③ 공격코스가 다양해지고 어려운 볼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독님과 코치님의 지도와 합동훈련이 많은 도움 됐습니다.
- ④ 부산체육고등학교를 떠나 새로운 팀에 가서 적응 잘하고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입상하고 싶습니다.
- ⑤ 감독님과 코치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 ① 나에게 세팍타크로는 성장이다
- ②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강력한 우승후보들을 꺾고 한 우승이라 더 뜻깊습니다.
- ③ 태국팀과 합동훈련을 한 덕분에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서비스 성공률을 높이고 정확도도 향상된 것 같습니다.
- ④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동료, 선배들과 팀워크를 잘 맞춰서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싶습니다.
- ⑤ 지도자분들이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겠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야구부

질문

- Q1 나에게 야구는 OO이다.
- Q2 2024년, 기억에 남는 순간은?
- Q3 2024년, 난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는지? 그 성장의 원동력은?

- Q4 2025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 Q5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① 나에게 야구는 꿈이다.
- ② 한창 타격감이 좋던 시기에 처음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선발 첫 타석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기쁜 감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③ 고등학교 때보다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팀 분위기 덕분에 시합 때 긴장도 덜하고 경기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 ④ 프로구단 입단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야구부가 전국체전 대표팀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 ⑤ 힘들고 지친 순간도 많았지만 2025년도 후회 없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 ① 나에게 야구는 인생이다.
- ② 대학 정규 시즌때 부진해 마음이 무겁던 차에 전국체육대회 첫 선발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③ 시즌 초반부터 제구력이 불안했는데, 과감하게 투구 자세를 개선한 덕에 팀이 전국체육대회에서 준우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 ④ 2025년에는 프로팀에 입단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한 만큼 꿈이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 ⑤ 노력한 만큼 성장하고 싶습니다. 실력은 물론 인성도 갖춘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질문

- Q1 나에게 실업팀은 OO이다.
- Q2 2024년, 실업팀 관리단장을 역임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은?

- Q3 2025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 Q4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실업팀은 부산체육을 한하게 비추는 등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팀 관리단장으로서 감회가 새롭고 자랑스럽습니다.
- ②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우리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만큼 선수들과 지도자 모두 이기고자 하는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부산 선수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를 때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부산 실업팀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 ③ 2025년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후회 없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 ③ 싶습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친목 도모에도 힘써 종목 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 ④ 우선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단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인화 회장님과 박가서 상임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선수단 지도자분들, 선수분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수단 여러분은 우리 부산체육의 선봉장이며 희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산체육이 대한민국 정상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합시다. "2025년 부산 나가자! 부산 이기자! 부산체육 파이팅!"

부산광역시체육회 2025 비전과 목표



2025년은 부산광역시체육회 민선 2기가
후반기에 접어드는 해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 그리고 도약'을 화두로
부산전국체전 개최를 통한 지역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 도시 구현이 주요 사안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 변화와 내수 회복 지연,
교부세 및 지방 세수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여건 지속으로
재정건전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에도
학교체육 위기에 대응하는 스포츠 늘봄학교,
아침체인지 확대 및 부산시 15분 생활권 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강도 높은 쇄신과 자정능력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체육 관심도 증가를 위한 후원 캠페인도 추진할 전망이다.

비전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로 행복도시 실현

목표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체육천국도시 조성

추진전략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스포츠 가치 확산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엘리트체육 지원시스템 구축 생태계 조성	현장중심 협업으로 생활체육 기반 확대	국제교류 활동증진, 스포츠마케팅 콘텐츠 강화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체육 행정쇄신

중점추진과제

STEP1	1. 부산체육 콘텐츠 및 마케팅 기능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2. 엄정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 구축 3. 회원단체 기능 및 조직 행정력 강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STEP2	4. 미래를 준비하는 체육인재 발굴 육성을 통한 학교체육 진흥 5. 엘리트 체육인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편적 체육인복지 본격 시행 6. 체계적인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역량 강화 7.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경기 운영 지원 체계 구축
STEP3	8. 일생형 체육활동 지원으로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 9. 활기찬 운동문화 조성을 위한 체육 서비스 강화 10. 지역체육단체 진흥을 위한 지원 체계 확립
STEP4	11. 국제스포츠 교류협력 정책강화 12. 시민과의 친밀한 소통을 통한 체육홍보 확산
STEP5	13.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체육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4. 적극행정 실천을 통한 고효율 정책 실현 15. 열악한 종목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1

스포츠 가치확산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① 부산체육 콘텐츠 및 마케팅 기능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체육회 유·무형 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후원기업을 통해 부산체육 진흥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내 향토기업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부산체육 발전진흥 후원금 및 각종 후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② 공정한 스포츠 환경 기반 구축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권익침해 사건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체육계 인권 존중 문화 및 제도를 확립할 것이다.

③ 회원단체 기능 및 조직 경쟁력 강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회원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 조직 행정력 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조직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규정 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행정 처리가 확인되는 경우 시정 요구 및 특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로 '회원단체 직무연수'와 '부산 체육진흥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단체 실무자 및 체육인들의 기초직무 지식과 필수교육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체육의 과거와 현재를 살피고 실효성 있는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엘리트체육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태계 조성

① 미래를 준비하는 체육인재 발굴·육성을 통한 학교체육 진흥

학교운동부 경기지도자, 고등·대학 학교운동부, 체육 꿈나무, 학생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 전문선수 연계 육성 시스템 구축 및 운동부 활성화를 도모한다. 학생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명망한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엘리트 체육인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편적 체육인복지 본격 시행

체육회 실업팀 및 시직장운동경기부 수탁 운영을 통해 관내 우수선수를 연계육성, 청렴한 실업팀 문화를 정착시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수단을 운영하고자 한다. 아울러 올바른 스포츠 가치와 건실한 실업팀 운영의 일환으로 실업팀 지도자·선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을 정례화할 것이다. 경기력 기반 강화를 위한 부산관내 실업팀을 지원하고 신규 실업팀의 창단과 기존 팀을 후원업체에 이관하는 등 실업팀과 기업체 연계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③ 체계적인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역량 강화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를 통한 전문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선수 발굴 및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우수선수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체육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④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경기 운영 지원 체계 구축

종목별 경기장 공·승인을 획득하고 경기용 기구 확보, 최적의 경기 환경을 조성해 선수 기량 발휘를 지원하고자 한다. 회원종목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대회 운영 인력을 확보하게 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한다.

3

현장중심 협업을 통한 생활체육 기반 확대

① 일생형 체육활동 지원으로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일생형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스포츠복지사회를 실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 여가 선용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종목별 대회를 지원하고자 한다. 취약계층 및 여성 체육인들에게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스포츠 복지를 실현할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인 전통종목 씨름을 보급하고 지역 우수동호인을 발굴, 씨름인구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지역별 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② 활기찬 운동문화 조성을 위한 체육서비스 강화

공공체육시설 수탁운영으로 쌓아온 관리·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문성, 공익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2027년까지 수탁 운영 예정인 종합실내훈련장의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회원단체 훈련장 운영비를 지원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체육회관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개별 훈련장이 없는 종목 및 회원종목단체에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끝으로 부산스포츠과학센터 - 스포츠헬스케어센터를 운영, 개인 맞춤형 기술 강화 및 회복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③ 지역체육단체 진흥을 위한 자원 체계 확립

구·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상근직 근무 체계를 확립해 업무 책임성을 높이고 사무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구·군체육회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체육 현장에 배치해 '찾아가는 양질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4

국제교류 활동증진, 스포츠마케팅 콘텐츠 강화

① 국제스포츠 교류협력 정책 강화

글로벌 허브도시를 추구하는 흐름에 맞춰 종목간 스포츠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국외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제 친선교류를 활발히 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국제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를 개최해 자매도시인 일본 후쿠오카와 교류를 재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

② 시민과의 친밀한 소통을 통한 체육홍보 확산

부산체육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부산 관내 전문·학교·생활체육 관련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스포츠의 필요성을 홍보할 것이다. 나아가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대표 사보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셜 네트워크, 부산스포츠 기자단 등의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소통 내용을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등 홍보 사업도 추진하고자 한다.

5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체육 행정쇄신

①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체육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및 직무능력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인사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성과와 능력 중심 평가제도를 도입해 보상·승진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동시에 불공정·비위행위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 및 지속적인 부조리 문제를 근절하고자 한다.

② 적극행정 실천을 통한 고효율 정책 실현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잘못된 관행 및 악습을 근절하고자 한다. 더불어 수평적 문화를 통한 열린소통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로써 체육인의 권익증진과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부산 체육계 전반의 재정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열악한 종목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열악한 종목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업무 지원의 일환으로 회원종목단체 통합사무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종목단체를 우선으로 지원하여 사무국 행정력을 강화하고 회원종목단체 실무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낮춰 협회 본연의 업무 전담 기능을 강화시킬 것이다.

스키가 사라진다고? 지구온난화나 동계스포츠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기온 상승을 넘어, 우리가 즐기는 다양한 스포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눈과 얼음을 기반으로 하는 동계스포츠는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스키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이제 엄살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가 되었다.



자연설 감소와 인공 눈 의존 증가

지구온난화는 동계스포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온도 상승, 눈 부족, 눈의 품질 저하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계스포츠 산업과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때 풍부한 자연설로 유명했던 스위스 알프스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눈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많은 스키장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9월 미국 CNN은 지구온난화 탓에 프랑스 알프스산맥 몽블랑 인근에 위치한 한 스키 리조트가 영구 폐쇄됐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스위스 알프스 북쪽 지역에 위치한 스키 리조트들 역시 같은 이유로 문을 닫고 있으며 일부 리조트의 경우 스키장 대신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스키장들이 인공 눈 제조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선 역시 좋지 않다. 인공 눈 제설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며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1m³ 부피의 인공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400ℓ의 물이 필요하다. 자원 낭비뿐 아니라 제설기 작동 시 사용되는 화석연료 역시 큰 문제다. 대부분의 제설 기계는 화석연료를 태워 작동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 결과,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진 눈을 만들기 위한 인공 눈은 또 다른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참고 자료 : "Climate change cost U.S. ski industry billions." 2024. 2. 24. AP, "Ski resorts' era of plentiful snow may be over due to climate crisis." 2024. 3. 3. 가디언誌

◀ 스키 리조트에 설치된 인공 눈 살포기



매년 줄어드는 스키 관광객

북미 지역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국 스키 산업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약 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2050년대에 이르면 매년 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인공 눈을 사용하더라도 미국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즌은 적게는 14일, 많게는 33일 단축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미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즌은 평균 5~7일이 줄어들었다.

뉴욕과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눈 부족으로 인해 많은 스키 리조트가 문을 닫았다. 미국 서부의 스키장들 역시 자연설 부족으로 인해 인공설 제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가뭄과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공설 제조조차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눈의 질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므로 이에 실망한 스키어들이 스키 대신 산악자전거 같은 대체 스포츠로 눈을 돌릴지도 모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나라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빙하와 만년설이 빠르게 녹으면서 설원을 주요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동

계올림픽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100% 인공 눈으로 경기장을 만들어야 했다. 이는 자연설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온난화로 인해 눈이 줄어들고 있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인공설을 대량으로 활용해야 했다.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에서는 눈 품질 저하와 강설량 감소로 인해 매년 스키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계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높은 고도에 새로운 스키장을 개발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선수들의 안전사고 우려

인공 눈을 사용할 때 선수들의 안전 문제 또한 걱정된다. 자연설은 부드러워서 압력을 받을 때 완충 효과를 제공하지만, 인공 눈은 그렇지 않다. 자연



▲ 인공 눈으로 채워지고 있는 스키 리조트

설보다 더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단단하고 압축된 구조이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적어 넘어졌을 때 부상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특히 무릎 부상(십자인대 손상)이나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인공 눈은 일반적으로 물 함량이 더 높아 표면이 더 미끄럽다. 이는 스키어나 스노보드 선수가 속도를 제어하기 어렵게 만들고, 제동이나 방향 전환 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 특히 고속으로 이동하는 동안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선수들의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공 눈은 자연설처럼 균일하게 깔리지 않으며, 특정 지역에서 뭉치거나 얼어붙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표면 불균형은 스키나 스노보드 선수의 안정성을 떨어뜨려 넘어지거나 비틀림 부상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인공 눈은 동계 스포츠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물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모두의 노력으로 동계스포츠 지켜야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기온 상승을 넘어, 우리의 삶과 문화, 스포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동계스포

츠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 도입, 지속 가능성 중심의 리조트 운영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각국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계 스포츠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최소한의 눈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한 스키장은 올해 남은 눈을 따로 보관해두었다가 다음해에 재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또한 지금은 인공 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선수나 스키어들의 사고 예방 대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스키 리조트와 경기 주최 측은 코스의 균질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 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위험 지역을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적이고 자연 눈에 가까운 인공 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일반 대중들도 대중교통 이용, 개인 컵 사용,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등을 실천하여 지구온난화 완화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전 세계적인 노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100% 인공 눈을 써야 했던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



▲ 인공 눈 위를 활강하는 스키어는 방향 전환이 더욱 어렵다.



국립부경대학교 공공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소개



세대를 초월하는
체육 공간을 꿈꾼다

부경스포츠클럽

국립대학 최초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권을 확보한 부경대학교.

부경스포츠클럽은 스포츠 과학 연구 시설 등 대학 인프라와 연계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 스포츠로 부각되는 e스포츠와 VR스포츠의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부경스포츠클럽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경스포츠클럽은 지역 주민과 대학교 구성원들에게 건강 증진,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남구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 자리하고 있어 학교 구성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시설이 넓고 쾌적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도 입소문이 퍼져있습니다. 국립대학으로는 최초로 공공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게 된 터라, 다른 대학이나 공공스포츠센터에 모범 사례로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00여 명의 회원이 헬스, 테니스 등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습니다.

부경스포츠클럽의 시설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우리 클럽은 동시에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헬스장과 3개의 풀코트 테니스장, 클럽하우스를 비롯해 농구·배드민턴·탁구 등 다양한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헬스장에는 최신 운동기기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최근 수요가 많은, 소위 '천국의 계단'으로 불리는 운동기구도 2대 운용 중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의 경우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관중석과 규모에 맞는 음향 장비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0 사이에서 차세대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e스포츠 시설, e스포츠 아레나도 운영 중입니다.

e스포츠 아레나, 부경스포츠클럽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클럽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육시설'이 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인 스포츠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주로 향유하는 차세대 스포츠도 관리·운영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아레나는 지역 내 최초로 고사양 장비를 갖춘 e스포츠 전용 공간으로, 훈련을 위한 네트워크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유소년 리그와 대학 리그를 우리 부경스포츠클럽이 지원하고 있고 지역 대표 선수 발굴에도 기여 하면서 e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버워치' 종목의 프로팀도 우리 클럽으로 전지훈련을 올 만큼 훈련환경과 시설이 잘 갖춰져있다고 자부합니다.

추가로, 우리 클럽은 국립대학이 운영하는 곳인 만큼 대학과의 연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체육 이론과 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건 물론, 체육과학에 관한 연구도 가능해서 보다 과학적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럽 운영에 힘든 점은 없는지??

국립대학이 운영하는 최초의 공공스포츠클럽이다 보니 행정적인 부분에서나 실무적인 부분에서 선례가 없어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공공스포츠클럽 사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 기준으로 삼는 점이 지자체 조례라, 대학의 공공스포츠클럽에 적용되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지만, 우리 클럽이 선두주자인 만큼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가는 길을 잘 닦아 향후 부산지역에 새로이 지정될 공공스포츠클럽들이 포장된 길을 걸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Mini interview

부경스포츠클럽 정민승 사무국장



부경대학교 입학처 공무원으로 부경대학교와 인연을 시작했는데, 과거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한 경험과 행정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경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제가 했던 경험에 더해 회원들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정기 설문을 실시하며 개선·보완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함께 클럽을 꾸려 나가는 직원들에게 강조하듯 회원들이 재밌고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스키인들의 든든한 친구

부산 스키사랑

추위를 잊게 만드는 설원 위의 질주.

2003년, 아직 스키장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던 시절부터 스키에 대한 깊은 애정을 안고 부산과 강원도를 오가며 활동을 이어온 이들이 있다. 스키로 맺어진 인연과 눈 위에서 피어난 열정으로 겨울을 나는 동호회, '부산 스키사랑'을 만나보자.

Q. '부산 스키사랑'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부산 스키사랑은 2003년 부산 지역의 스키 애호가들이 모여 시작된 동호회입니다. 초기에 무주에서 주로 활동할 때는 슬로프(스키나 스노보드를 타기 위해 조성된 경사진 코스)를 빌려서 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많은 회원이 함께했지만, 이후 전국 곳곳에 스키장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는 각 스키장마다 타러 다니는 분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키 국가대표인 강영서 선수의 아버지이신 강홍구님은 용평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고, 무주에서는 전북스키협회 회장님이신 김국진님이 저희 부산 스키사랑 출신으로 활약 중입니다. 현재 저희 부산 스키사랑에는 431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스키뿐만 아니라 스노보드를 즐기는 회원들도 소규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스키라는 스포츠에 관해 설명을 해주신다면?

스키는 다양한 종목이 있지만, 동호회 활동에서는 주로 알파인 스키를 즐깁니다. 알파인 스키는 깃대를 통과하며 속도를 겨루거나, 회전을 통해 기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짧은 구간을 빠르게 도는 쏫턴, 중간 길이의 미들턴, 긴 구간을 사용하는 롱턴, 그리고 스키의 날을 세워 속도를 극대화하는 카빙턴이 있습니다. 카빙은 스키를 세워 타는 기술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이외에도 모글 스키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는 눈 언덕을 빠르게 내려오는 기술로, 주로 레벨 시험에서 활용됩니다.

스키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장비입니다. 특히 헬멧은 요즘 스키장에서 필수적으로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몸을 눈과 추위로부터 보호할 방수 스키복, 눈을 가리는 고글, 폴대, 발을 고정하는 스키 부츠, 그리고 스키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스키장에서는 스키복, 스키, 폴대, 부츠를 대여할 수 있지만, 장갑과 고글은 개인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스키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스키의 가장 큰 매력은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재미있어진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키를 타러 가면 중급이나 상급 코스를 내려오는 것만으로 만족하곤 하지만, 단순히 내려오는 것만으로는 설매를 타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키는 산을 내려오며 다양한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핵심인 스포츠입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는 천천히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낮은 곳에서는 속도감 있게 질주하며 스키만의 쾌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키도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장비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 역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묘미를 점점 더 배워가는 재미가 스키의 매력입니다.

Q.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으신가요?

저희 동호회는 스키와 보드를 잘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즐겁게 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회원들이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호회 차원의 훈련 프로그램은 없고 개인적으로 연습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스키지도자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실력있는 회원들이 서로 조언을 해주며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1 한솔섬유배 아름다운스키대회 시니어부에서 류용재 회원님이 우승하셨습니다.



Q. 올겨울, 스키장을 처음 찾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스키를 즐기기 전에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기본적인 기술을 꼭 배우실 것을 권합니다. 대부분의 스키장에서는 초보자들을 위한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스키장에 나서면 활강을 하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심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얀 설경 속에서 눈 위를 가르는 상쾌한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 스키의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부산 스키사랑 동호회

부산 스키사랑은 한때 온라인 카페에 5천 명에 가까운 회원 수를 자랑했을 정도로, 부산에서 스키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처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동호회입니다. 지금은 다소 회원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스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키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회원들도 많아, 실력을 쌓기에도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호회는 그저 스포츠를 즐기는 곳이 아니라, 서로 가족처럼 친근하게 지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스포츠의 진정한 재미는 함께 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스키를 타며 하얀 눈 위를 가르는 그 짜릿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세요.



2024 부산 체육 진흥 세미나

2025년 전국체전 성공 개최 위한 도약의 발판 마련

글 _ 제4기 부산스포츠 기자단 이지민

2025년 부산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를 지역 스포츠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2024 부산 체육진흥 세미나가 11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체육계 주요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국체전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자리로, 1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좌장으로 나선 오재환 부산연구원 부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내 체육 발전을 이끄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박재성 영산대학교 레저스포츠관광학과 교수는 지역 스포츠 축제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체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김대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 전공 교수는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발표를 통해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 속에서 지역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다. ▲울산광역시체육회 생활체육 부장은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체육의 발전과 향후 전략을 발표하며 타 지역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전략을 공유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국체전을 단순한 체육 대회가 아닌 시민 참여형 지역 축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박재성 교수는 “지역 스포츠 축제로의 전환 시 가장 큰 도전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는 데 있다”며, “지역 문화와 체육을 접목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대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 전공 교수는 전국체전을 지역 스포츠 축제로 전환하는 데 있

어 부산이 가진 강점과 기회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부산이 해양 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체육대회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으로 스포츠를 통해 도시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이 부산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질의응답을 끝으로 폐회했으며, 이번 논의를 통해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25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체육의 활성화와 부산 시민들의 체육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체육계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국체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논의하고, 지역 체육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부산은 이제 체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전국체전을 단순한 경기 대회를 넘어선 진정한 지역 축제로 만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제13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생활체육 & 댄스페스티벌 경연대회

글 _ 제4기 부산스포츠 기자단 반종완



최경훈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곳에 오신 전국 체조인 가족 여러분을 환영한다. 생활체육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즐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며 "이번 개최되는 대회를 통해 참가자 모두가 교감하고 협동하며 건강한 내일을 위한 에너지 충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눈길을 끈 것은 생활체육 국제 교류를 통해 몽골체조연맹에서 참가한 것과 일반부 건강체조종목에 장애인팀이 참가한 것이다.

작년 처음으로 체조협회와 교류를 맺은 몽골체조연맹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져서 생활체육이 글로벌 스포츠로 거듭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또한, 나사함 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온 당나귀 주간 활동팀은 작년에 이어 올해는 8색조 당나귀로 두 번째 도전하게 되었다.



팀 이름은 '당신은 나사함의 귀한 존재입니다'의 줄임말로 '당나귀'이다.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별도 채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장애인들의 출전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대담한 도전이었다. 사회자가 당나귀팀을 간단히 소개했다. 당나귀팀원 중에는 두렵고 떨려서 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공연이 시작되자 나사함 직원·가족·선생님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춤을 추었다. 그들은 평소 연습한 대로 4분 동안 큰 실수를 하지 않고 공연을 마무리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무대였기에 더 큰 감동을 주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최한 부산광역시체조협회 최경훈 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01 그동안 대회 준비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요?

구·군 체조협회 동호인 클럽과 학교 댄스 동아리, 전문 댄스 학원 등 관계자들의 소통과 홍보를 통해 스스로 참여하는 대회로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02 이번 대회의 취지와 부산체조의 현황은?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다양한 댄스 종목 동호인들의 화합과 발표 기회의 장이며, 입상한 팀은 내년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 부산 대표로 발탁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부산은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생활 댄스 분야 6연패와 더불어 2022년, 2023년 종합우승, 2024년 준우승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03 체조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모든 스포츠의 기본 종목은 '체조'입니다. 국제체조연맹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성별, 연령, 장애,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체조, 승패를 떠나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스포츠입니다.

04 내년의 목표와 비전은?

내년 4월에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 2025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 부산생활체육 선수단이 참가하여 다시 한번 종합우승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습니다. 또한 몽골 외 다른 국가와도 국제 교류를 넓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친선대회를 개최하고 부산생활체육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미리보기



100년을 넘게 이어온 온 국민 축제의 장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대한체육회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오는 10월 17일(금)부터 23일(목) 7일간 열린다. 대회는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82개소에서 진행되며 50개 종목(정식 47, 시범 3)에서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해외동포부 선수 2만여 명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 전국체육대회 조직위 출범

부산시는 지난 12월 20일(금) 부산롯데호텔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창립총회와 D-300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준비상황 보고, 위촉장 수여식, 성공 기원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한편 부산시는 25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대회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 시민들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직위원장(부산시장)1명, 고문위원 28명, 부위원장 6명, 위원 103명으로 구성된 조직위는 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기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지 부산

부산은 국내 체육 발전을 견인해오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지'다. 25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전국체전은 '체육 역사 도시 부산'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계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부산은 이번 이번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소년체전'(26.5.), '전국생활체육대축전'(27.4.)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히면서 "지역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순차 개최하며 체육 시설의 신설·개보수가 진행되면 스포츠 천국 도시 부산의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합, 희망, 안전, 감동

이번에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시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화합체전] △체육천국도시로 도약하는 [희망체전] △선수와 관람객들 모두 편안한 [안전체전] △정성 어

린 환대로 전 국민이 감동하는 [감동체전]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한다. 부산과 함께하는 화합, 희망, 안전, 감동체전을 실현해 나아가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대회 개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25.10.17.(금)~10.23.(목)(7일간)
장소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82개소
경기종별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해외동포부
경기종목	50개 종목(정식 47, 시범 3)
참가인원	약 3만 명(선수 2만, 임원 1만)
주최/주관	대한체육회 /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부산시체육회

대회 상징물 소개

엠블럼	<p>부산의 영문 앞자인 'B'를 토대로 2025년 전국(장애인) 체전의 비전과 열정을 상징하는 '성화'를 상단에, 부산의 끝없는 푸른 바다를 상징하는 '물결'을 하단에 배치했다.</p> <p>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 세계와 미래를 향해 역동적으로 달려나가는 모양을 체전의 대표 종목인 '육상'과 '성화봉' 콘셉트로 표현했다.</p>
마스코트	<p>부산시 소통 캐릭터인 '부기(부산 갈매기)'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부산을 방문한 선수단 및 관람객들에게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심어준다.</p> <p>성화를 들고 달려나가는 주자의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열정과 단결,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했다.</p>



저자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권정윤, 한다혜 외 5명
출판사 미래의창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 모든 전제를 원점으로 되돌려라

해의 토픽을 장식한 푸바오 열풍, 마라탕과 탕후루에 이은
두바이 초콜릿 열풍, AI 열풍, 의대 열풍, 스페셜티 커피 열풍, 레트로 열풍,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면작귀’ 열풍까지….

이 모든 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열풍의 이면에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과 결핍은 무엇일까?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트렌드 코리아>는 그동안 수많은 독자, 마케터, 기업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온 명실상부한 트렌드 분석서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을 가장 먼저 포착하고 시장 변화를 전망하는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해왔다. 경영인과 마케터에게는 마케팅 전략 수립과 경영 의사결정에 없어서는 안 될 참고서가 되고, 일반 독자들에게는 우리 사회의 욕망과 결핍을 통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트렌드코리아 2025>는 먼저 역대급 무더위와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의 기록을 연달아 경신했던 2024년을 돌아본다. 2024년 대한민국은 ‘초효율주의’, 불황기 생존 전략, ‘지리한 정체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 ‘시그니처의 힘’, ‘요즘 가족’의 키워드로 요약되며, 역동적 변화와 다양성을 보여준 해로 기록된다.

지난 9월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저자인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2025년에는 디테일한 작은 차이를 발견해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계가 정체된 시기에는 작은 차이를 만들어 작은 성공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2025년에는 큰 한 방보다는 저마다의 디테일하고 미세한 차별점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트렌드를 도출하

고 생성할 수 있는 인사이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교수와 트렌드코리아팀이 선택한 2025년 소비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는 ‘옴니보어’와 ‘아보하’다. ‘옴니보어’는 잡식성 소비를 뜻하며, 개인의 취향이 더욱 선명해지고 집단의 경계는 흐려지는 현상을 반영한다. 또한, ‘아주 보통의 하루’를 뜻하는 ‘아보하’는 불안하고 뻘컘한 사회 속에서 안정과 위로를 갈망하는 욕구를 드러낸다.

이외에도 책이 제시하는 2025 주요 키워드인 ‘기후감수성’, ‘토픽경제’, ‘원포인트업’은 옴니보어 소비자들의 일상과 아주 보통의 하루를 좇는 사람들의 면면을 비춘다. 디지털 시대에 더욱 매력을 발산하는 물성에 대한 추구를 다룬 ‘물성매력’, 기술에 인간의 얼굴을 입히기 위한 기술의 움직임에 담은 ‘페이스테크’, 공생과 진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인 ‘공진화 전략’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남다른 감각으로 먹이를 잡아채는 뱀의 놀라운 능력과 닮아있다.

2025년, 뱀처럼 예리한 감각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싶다면 <트렌드 코리아 2025>을 참고해 보자. 최고의 소비 트렌드 분석가들이 집필한 이 책은 다가오는 한 해를 현명하게 준비할 안내서가 될 것이다.

BSC SPORTS NEWS

Busan Sports Council

2024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2월 1일(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 4층 월계관에서 부산지역 다문화 가족 구성원 300명을 초청하여 다문화가족 한마음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기존 16개 구·군체육회와 함께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을 다문화 가족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페스티벌 형태로 변경하여 개최하였으며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가족운동회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어우러져 하나의 큰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참가자의 장기자랑과 가족운동회(박터트리기, 2인 3각 달리기, OX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운동회의 꽃인 계주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각 1명씩 참여하여 멋진 승부와 열띤 응원으로 그 열기를 더했다.

특히, 참여자의 사전 신청으로 진행된 노래자랑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다민족의 민요 등 각 나라의 전통을 간접적이거나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이 겪는 여러 어려움과 도전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다문화 가족은 각자의 고유한 문화와 경험을 지닌 특별한 분들로서 이번 축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2024년 부산 스포츠클럽 및 유관단체 관계자 워크숍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12월 11일(수)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공공스포츠클럽 및 유관단체 실무자 등 1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 부산 스포츠클럽 및 유관단체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교육, 챗GPT와 생성AI 실무 교육, 스포츠클럽 우수사례 운영현황 발표로 구성되었으며, 공공스포츠클럽의 발전 방향과 행정실무자 직무 역량 강화, 스포츠클럽 및 유관단체 교류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공공스포츠클럽 및 유관단체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능력향상 및 스포츠클럽 운영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공공스포츠클럽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부산체육 유공자 시상식’ 성료



2024년 부산체육 발전의 주역, 한자리에 모여

「부산체육을 빛낸 체육인 90명 표창, 8개 단체 표창 및 감사패」
 부산광역시체육회는 12월 30일(월) 오후 5시, 호텔농심에서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 및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2024 부산체육 유공자 시상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 및 구·군체육회장과 회원종목단체장 그리고 체육회 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주요 내빈 소개 및 인사말씀, 유공자 시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공자 표창에는 ▲부산광역시장상(47) ▲부산광역시체육회장상(48), ▲감사패(2) ▲공로패(1) 등 개인 및 단체 표창 그리고 단체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장인화 회장은 올해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파리올림픽 등 국제대회와 동·하계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등 국내·외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로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라며 지난 1년을 돌아켜봤다.



또한 민선 2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지방체육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와 강도 높은 쇄신으로 부산체육이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하며,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며 뒤이어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예정되었다.

장인화 회장은 “2025년을 시작으로 3년간 전국종합체육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민들과 체육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 도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부산체육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제13차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중구체육회 송년의 밤 개최 예정

12월 2일(월) 제13차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광복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위원회는 중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심의를 의결하였으며, 안전에 대한 질의를 주고 받았다.

12월 19일(목)에는 부산중구체육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2024년을 뜻깊게 마무리하고 중구 체육 발전을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서구체육회 2024년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서구체육회는 지난 11월 30일(토)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서 '주 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온 가족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해 가족 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했다. 참여 정원 60명 모집에 200명 넘는 인원이 지원할 만큼 큰 관심을 모은 이번 행사는 서구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으로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다.



동구체육회 2024 주5일제 실천광장 가족캠프

동구체육회는 11월 16일(토) 김해가야테마파크 일원에서 '2024 주5일제 실천광장 가족캠프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동구 관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40여 명이 참여해 △익 사이팅 레저 체험 △상상놀이터 체험 △도자기 체험 등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며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영도구체육회 2024년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송년회 및 체육인의 밤

영도구체육회는 12월 6일(금) 영도 목장원 4층 오비스타홀에서 '2024년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송년회 및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4년 입상자들에 대한 봉납식과 더불어 영도 구 체육 진흥에 기여한 임원 및 동호인들에게 감사패,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2024년 체육회 활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하며 서로를 격려했고 경품권 추첨과 이벤트를 끝으로 행사가 종료됐다.



부산진구체육회 2024년 백양산 숲길 걷기대회 개최

11월 10일(일)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 성지곡 수원지 일대를 걷는 '2024년 백양산 숲길 걷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900여 명의 부산진구민·부산시민이 부산어린이대공원에 모였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대회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부터 바람개개까지의 왕복 6.2km 코스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가족 친지와 뜻깊은 추억을 공유한 것은 물론 부산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자연을 사랑하고 보전하는 마음을 다졌고 축하공연과 경품 증정 행사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남구체육회 제8회 남구청장기 유소년 축구대회

부산 남구 축구 꿈나무들의 축제의 장인 '제8회 남구청장기 유소년 축구대회'가 11월 24일(일) 백운포 체육공원 인조 1·2 축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등 새롭게 정비된 인조2축구장에서 개최된 이날 개회식에는 오은택 남구청장, 정춘식 남구체육회장, 서성부 남구의회 의장, 시·구의원을 비롯하여 참여 학교 학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개최를 축하하고 축구 꿈나무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소년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부상자 없이 대회가 마무리됐다.



동래구체육회 제19회 동래구청장배 축구대회

동래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7일(일) 동래중학교 운동장에서 제19회 동래구청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생활체육 축구 동호인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평소 쌓아온 실력을 뽐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구기종목인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참여자들은 동지애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 동래구체육회는 앞으로도 동호인들의 체력 증진과 실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북구체육회 2024년 제2회 목촌돼지국밥배 게이트볼대회

북구체육회는 지난 11월 20일(수) 화명생태공원 게이트볼장에서 제2회 목촌돼지국밥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주)행운식품에서 주최하고 부산광역시북구게이트볼 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건전한 생활 스포츠인 게이트볼 대회를 통해 동호인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동호인들이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해운대구체육회 2024 해운대구 체육인의 밤 개최

해운대구체육회는 지난 12월 4일(수) 그린나래호텔에서 '2024 해운대구 체육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체육인의 밤은 연간 추진한 체육 업무의 성과 분석과 체육 진흥 및 활성화에 헌신한 유공자에 시상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매년 개최한다. 이날 22명의 체육 유공자들이 공로패, 표창장 등을 수여받았고 참가자들은 만찬을 즐기며 수상자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박영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14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하구체육회 제23회 사하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 개최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11월 23일(토)~24일(일) 동아대 체육관, 강서 체육관에서 제23회 사하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관내 18개 클럽 293팀이 참가해 클럽 대항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연령·급수별로 조를 세분화해 참가자 간 경쟁을 조율했다. 개회식에는 이영구 사하구체육회장, 이성권 국회의원, 채창섭 사하구의회의장, 최인호 민주당 사하갑 지역위원장, 성창용·최영진·전원석 부산시의원, 박은미 사하구청 체육홍보과장, 유명재 군건병원장 등 내빈이 참석해 선수들을 응원했다.



금정구체육회 2024 금정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금정구체육회는 11월 16일(토) 금정구민운동장에서 '2024 금정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6개 동에서 3,000여 명의 구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풍물단과 치어리더팀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참가자들은 트미션 릴레이 △에어돔 만들기 △색판 뒤집기 △탑 오브 더 월드 등 다양한 체육 경기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다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다양한 체험 부스와 홍보 부스, 초청 가수의 공연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마무리되었다.



강서구체육회 강서구청장기 초·중등부 축구대회

강서구체육회는 11월 2일(토) 명지 축구운동장에서 '강서구청장기 초·중등부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8개교의 선수 400여 명이 참가하여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초등부는 명원초등학교, 중등부는 경일중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선수들은 서로 화합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관한 김재업 강서구체육회장과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경기장을 안전하게 대회를 치를 것을 당부하고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제구체육회 2024 연제구체육회 플로깅 대회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11월 9일(토) 주요 내빈 및 연제구 관내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연제구체육회 플로깅 대회를 진행하였다. 배산 돌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행사를 통해 체력단련과 환경보호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수영구체육회 2024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수영구체육회는 11월 24일(일)에 양산시 에덴밸리 레저모아에서 수영구 관내 거주 가족을 대상으로 2024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페인트볼, 카트레이싱, 편아치리(양궁 서바이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가족의 화합과 사랑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었음은 물론, 가족 간의 친밀감 확대, 올바른 인성과 건강한 관계 맺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사상구체육회 제2회 전국 사상 ECO 마라톤 대회

11월 3일(일) 삼락생태공원에서 '제2회 전국 사상 ECO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다. 5,000여 명의 참가자가 참가하며 큰 화제를 모은 이번 대회는 환경과 건강을 강조한 친환경 마라톤으로 삼락생태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참가자들은 기량별로 5km, 10km 코스를 달리며 자연과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사상구체육회는 "체육회가 지역 사회의 소통과 단합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5년에는 더 많은 참여형 프로그램과 대규모 행사를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체육회 제6회 기장군수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11월 23일(토)~24일(일) 기장군수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월드컵빌리지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유소년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기장뿐 아니라 다른 지역 유소년들도 함께 모여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 한편 최상철 기장군체육회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대회가 계속 이어져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국민체육센터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은 지난 11월 7일(목) '2024년도 학부모 참여수업'을 개최해 학부모와 아이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꿈나무체능단원들은 가족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배운 것을 뽐냈다. 참여수업은 국악활동을 놀이와 접목시킨 사물놀이, 역사와 동화를 접목시킨 역사동화, 태권도, 그리고 체능단의 자랑 수영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는 "마냥 어린 아이인데 수영하는 너무나도 잘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아이들을 대견스러워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향후 운동회, 참여 수업 등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꿈나무체능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꿈나무체능단 학부모 참여수업 진행

북구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부산북구스포츠클럽 수영회원으로 등록된 이용회원 대상으로 11월 30일(토) '2024년도 부산북구스포츠클럽 가족 어울림 수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12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초등부, 성인부 남·여 1인 1종목으로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4개의 유형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북구국민체육센터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초등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소통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북구의 체육활동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부산북구스포츠클럽 가족 어울림 수영대회' 개최

영도국민체육센터

영도국민체육센터에서는 연말을 맞이하여 꾸준한 운동습관으로 건강미를 자랑하는 다양한 회원 행사를 개최했다.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수영 대회를 비롯한 각 연령대별 회원 체력왕을 선발하고 뉴스포츠인 피클볼 대회를 진행하여 다양한 상품을 지급했다.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회원 누구나 참가 가능했으며 회원들 간 친목과 화합의 장이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을 생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



'2024년 영도국민체육센터 회원 행사' 개최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지난 11월 27일(수)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2024 부산광역시 장애청소년 디스크골프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고등학교 12팀과 중학교 6팀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 심신 재활과 화합을 도모하고, 장애청소년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2024년 부산광역시 장애청소년 디스크골프대회' 개최

부산실내빙상장

부산실내빙상장 지난 10월 28일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으로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북구청, 북구문화예술회관,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5대대, 한전, 가스안전공사, KT, 자율방재단 등 10개 기관 200여 명이 참가했다.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지난 11월 29일(금)~30일(토) 테니스장 전면부 외벽 청소를 실시했다. 2017년 11월, 실내테니스장으로 리모델링 후 쌓인 먼지를 청소하고 주변을 정리하면서 쾌적한 환경과 운동환경을 조성하여 2025년 새해 맞이를 준비했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이용객들의 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내 청소, 코트 신규 규소 도포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테니스장 전면부 외벽 청소 실시

신평장림체육관

신평장림체육관은 이용의 편의성과 시설 개선을 위해 12월 18일(수)~19일(목) 이틀에 걸쳐 1층 로비 개인사물함 교체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공사로 사물함 내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발생한 곰팡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용객들이 겪었던 불편, 민원 사항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쾌적한 실내 환경이 조성되어 회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사물함 교체 공사 완료

부산광역시소프트테니스협회

제1회 부산시장배 생활체육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후원하고 부산광역시소프트테니스협회가 주관한 '제1회 부산시장배 생활체육소프트테니스대회'가 12월 8일(일) 부산동래구 사직종합테니스장에서 개최됐다. 소프트테니스 저변 확대와 부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부산과 경남, 대구 지역 선수 180여 명이 출전, 소속 클럽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열띤 경합을 벌였다. A조(A급 남녀 단체전)에서는 창원클럽이 우승, 부산클럽이 준우승을 차지했고 B조(B급 남녀 단체전)에서는 대구청운클럽이 우승, 백구클럽이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C조(C급 남녀 단체전)에서는 사직클럽이 우승, 수정클럽이 준우승을 기록했다. 특히 눈길을 끈 80대 개인전(복식)에서는 박기수-문순옥 조가 정상에 올랐고 장춘영-유재복 조는 2위를 차지했다. 부산광역시소프트테니스협회 우영환 회장은 "소프트테니스 중



목이 보다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경남과 대구는 물론 다른 지역 선수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대회로 규모를 격상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이 대회가 전국 최고의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소프트테니스협회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제61회 부산-대구 정기 테니스교류전 개최

12월 7일(토) 대구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에서 제61회 부산-대구 정기 테니스교류전이 개최되었다. 교류전에 참가한 부산-대구 지역의 초·중·고·대 전문체육 선수들은 교류전을 통해 서로의 기량을 비교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올해로 61회째를 맞은 교류전은 부산-대구 지역 테니스 저변 확대는 물론 테니스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 간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부산-대구 정기 테니스교류전은 부산과 대구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며 2025년에는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제2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



지난 11월 1일(금) ~ 3일(일) 문경시 일원에서 '제2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교류전에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수영, 배구, 야구 3종목 선수 105명이 참가했다. 이는 전국 88개 스포츠클럽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뿐만 아니라 참가한 전 종목에서 준우승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이번 교류전에 참가한 회원들에게 클럽 1개월 이용권을 지원하는 등 교류전 참가를 장려했다. 클럽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문의전화 051)247-9900



AP-01 라운드 긴팔 BLACK
SS 숏스탑 반바지 BLACK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스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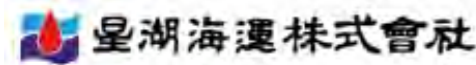
프로 선수의 스포츠웨어, 어썸스타

KEEP GOING

롯데디자인츠 선수
No.21 박세웅
<https://awesomestar.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



문화예술로 쌓아온 57년 부산은 행복합니다

문화로 웃음을 키웠습니다
예술로 일상을 빛냈습니다

부산의 행복이 문화예술로
더 커질 때까지
지난 57년처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BNK가 함께하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이 광고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

이제, 당신의 스포츠로 돌아가십시오!

스포츠 재활을 통한 경기력 향상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최첨단 시설



맞춤형 재활계획



체계적 접근방식



입증된 성공사례

전국 유일!
 등속성측정장비 보유 학교기업!

- 1 근력 및 지구력의 정밀한 분석
- 2 재활에 따른 즉각적 피드백 제공
- 3 신체 부위별 객관적 평가 및 맞춤형 훈련 장비
- 4 수술 후 부상 회복을 위한 최적의 재활장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54 동의과학대학교 스포츠재활센터
 TEL 051. 860. 3256 WEB <http://sportpt.dit.ac.kr>



DIT 스포츠재활센터
 SPORTS REHABILITATION CENTER